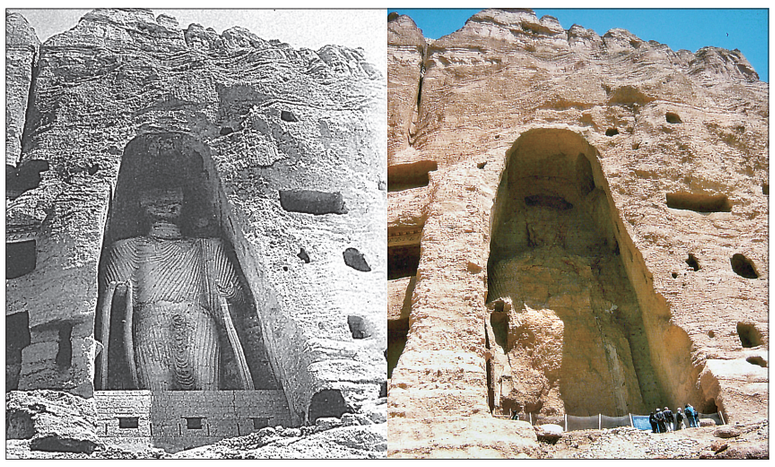
바미얀 대불 파괴 비극, 재현되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기 처해

이슬람 근본주의 하 반달리즘 확대 우려 2001년 바미얀 파괴

박영빈 객원기자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의 파괴 전 모습과 파괴 후 모습. 사진출처=위키디피아

20여 년 만에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산재한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8월 14일,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은 탈레반 치하의 불확실한 유물의 안전에 대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천 년 동안 중요한 무역과 문화의 교차로로서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도래하기 전 아프가니스탄은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가 번성했으며, 불교사에서는 초기대승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로 중국 현장법사의 기록을 비롯해, 〈왕오천축국전〉 등 다양한 고대기록이 남아있다. 최근 수도인 카불 인근인 메스 아이낙(Mes Aynak) 유적지에선 7세기경에 작성된 패엽경 사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풍부한 불교유물들이 탈레반 재집권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2001년,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석굴사원 대불을 비롯, 자한 아바드 마애불 등 불교유적과 유물을 파괴한 전적이 있다. 심지어는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간다라 시대 불상들도 철저하게 파괴했다.

모하메드 파힘 라히미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장은 "잊힌 역사지만 아프가니스탄 문화사에서 불교 위상은 매우 높다"고 말하며 "박물관의 유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은 과거 파괴된 불상들을 폐기하라는 탈레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수장고에 파편들을 보호해 왔다. 미국 철군 전에는 미국 지원으로 불상들의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탈레반의 보복이나 재훼손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고고학연구소장 누르아가 누리 박사는 "이렇게 빨리 탈레반이 재집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물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타 지역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수도 카불로 옮기려 했으나 정부의 저항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립박물관과 고고학연구소 측은 "여러 방법을 통해 탈레반 점령하의 박물관과 연구소들과의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유적지와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현황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레반 지도부는 공개성명에서 "고대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에 대해 엄중히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탈레반 추종자들에게 "모든 유적지들에 대한 불법적인 도굴을 중단하고, 미술시장에서의 유물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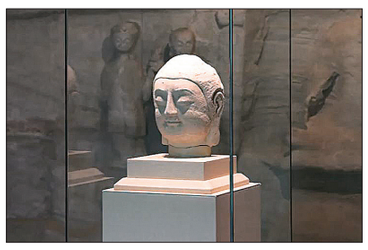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아메리칸대학의 오마르 샤리피 교수는 "사상을 앞세워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탈레반은 매우 위험하고 급진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며 유물과 유적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기금을 받은 연구자들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했다.

현재 탈레반 측은 박물관들이 소장한 불교유물들을 비롯한 고대 유물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100여년 만에 돌아온 불두

중국 천룡산 석굴, 일본 경매에서 환수



100여년 만에 귀향한 천룡산 석굴 제 8굴 불두. 사진출처=신화통신 유튜브 캡쳐

중국 샨시성(山西省) 천룡산 석굴에서 100여 년 전 도난당한 불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석굴에서 도난당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중 다시 돌아온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8월 1일, 중국의 '신화통신' 과 'AFP통신' 등의 외신들은 이를 특별보도했다.

샨시성 타이위엔(太原)시에 소재한 천룡산(天龍山)석굴은 기원전 386년 북조시대에 시작되어 약 200년간 당나라 때까지 조영된 불교석굴사원이다. 현재 25개굴 500구의 불상이 현존하고 있으며, 당나라 불교조각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21굴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조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은 중국의 국보에 해당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에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신화통신 측은 "천룡산 석굴은 1920년대 대대적으로 도굴당했으며, 전체 불상의 절반가량인 240여구 이상의 불상이 피해를 입었다. 소형 보살상의 경우 통째로 석벽에서 뜯겨 나갔고, 크기가 큰 경우 불두만 잘려 나가는 등으로 도난됐다"고 전했다. 현재 천룡산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불상 중 150구 이상이 해외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환수된 불두는 제 8굴 북벽의 불감에 봉안되어 있던 본존 마애불의 불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 8굴은 수나라 때 조영되었으며, 풍만한 몸매와 각진 둥근 얼굴 등 당나라 불교조각의 선구적인 형태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석굴이다.

중국 국가문물국에 "해당 불상은 1924년경에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로 33.7cm, 가로 30.4cm, 높이 44.5cm, 무게는 55.5kg 실측됐다. 재료는 주로 석영과 방해석이며 이는 천룡산의 지질적 특징과 일치한다"고 불상의 정보를 밝혔다. 또한 "정수리와 귀에 채색의 흔적이 발견돼 원래 채색된 불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눈에 띄는 훼손이나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환수된 불두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 도착, 베이징 루쉰 박물관에서 열린 환수기념 특별전에서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명초가 없어도 샴푸를 쓰세요

日, 스님전용 샴푸 발매

스님들, 평소 비누사용해 두피보호 초점 개발 진행 거품 에어로졸 형태 지녀



스님전용으로 나온 샴푸가 화제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출가의 상징으로 삭발염의를 말할 정도로 삭발한 머리는 출가한 스님들의 상징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삭발한 머리를 위한 샴푸라는 독특한 상품이 일본에서 출시돼 화제다. 8월 11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 '비즈스파' 등은 스님들을 위한 전용 샴푸의 개발과 발매에 대해 보도했다.

샴푸를 개발한 곳은 대머리와 탈모환자들을 위한 샴푸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회사 '밀리언 해피니스' 다. 밀리언 해피니스의 대표이사 카네다 노리유키는 "이번 상품은 기존의 상품과는 다르게 발모나 육모효과는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머리를 씻는 샴푸"라고 설명했다. 카네다 이사는 "대머리나 탈모, 혹은 삭발을 헤어스타일로 고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샴푸를 개발하는 회사이기에 스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러던 중 스님들께 '머리카락이 없으니 샴푸를 쓰지 않고 일반 세안비누나 바디샴푸 등으로 머리를 씻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정말 그것으로 괜찮은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며 스님 전용 샴푸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카네다 이사는 "초기 연구단계에서 두피와 신체의 다른 피부의 질이 다른 것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두피는 머리카락으로 햇빛이나 공기로부터 보호 받고 있기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의 연구에 따르면 삭발을 한 스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두피에 외부자극이 가면서 끈적임, 기름기, 냄새 등의 문제가 쉽게 유발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개발에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직접 참여, 혹은 협력했다. 카네다 이사는 "제작자로서는 재미있는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시장성에 의문이 있었기에 함께 상품을 개발한 제약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샴푸의 거품이었다.

일반적인 액체 샴푸는 머리카락과의 마찰로 거품이 일면서 세정이 이뤄지지만, 스님들에게 액체샴푸는 세정효과가 떨어진다. 여기에 "샴푸의 거품이 없으면 뭔가 씻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진한 거품이 발생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샴푸가 탄생했다. 시제품을 사용한 스님들은 "지금껏 이런 상품을 기다렸다"며 호평을 전했다.

샴푸와 함께 두피에 바르는 로션도 함께 개발됐다. 개발사 측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온라인판매만 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더 많은 미용업소 등에 배치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주, 캄보디아 승려 횡령으로 해임

무죄 주장에 8월 13일 법정서 판결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토마스타운의 캄보디아 불교 사찰 주지가 해임됐다. 8월 13일 뉴질랜드 다중 플랫폼 뉴스 '뉴스허브' 는 주지인 호우트 체트의 해임 소식을 전했다. 호우트 체트 스님에게 걸린 혐의는 보시금 횡령과 파계행위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호우트 체트 스님은 지난 2012년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건립한 대표적인 불교사찰인 '크메르 불교협회' 본부 사찰의 주지로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스님에게 여러 구설수와 논란이 일면서 이사진과 대중들의 회의를 거쳐 주지직에서 해임됐다.

크메르 불교협회 측은 "호우트 체트는 승단의 허가 없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찰의 보시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횡령한 보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출가자로서 율장에서 금지된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됐다"고 폭로했다. 협회 측은 횡령된 보시금의 일부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쪽이든 승단에서 추방하고 멸빈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전했다.

호우트 체트 스님은 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멸빈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결국 법정이 주지직 해임을 인정함으로써 종결됐다. 협회 측은 법정에서 사찰회계를 근거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3개의 개인 계좌를 통해 보시금을 가로챘으며, 심지어는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지급된 복지수당이나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을 내린 멜버른 지방법원의 가드판사는 "호우트 체트가 더 이상 크메르 불교협회에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사찰에 거주 또는 잔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국최초최고불자명품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 입학식 / 개강 특강 | 2021년 9월 6일(월) 오후7시 |

–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 –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벽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